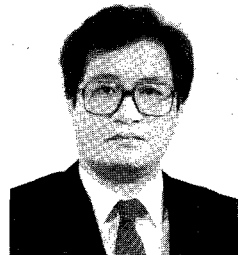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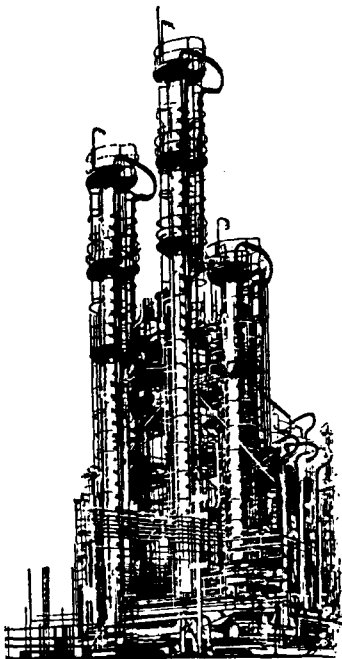


#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배합사료 산업의 역할



장 경 국  
(주)선진 전무이사



**작**년 12월 WTO가입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우리 축산업계는 심각한 전환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UR협상 결과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로 향후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교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이에따라 우리 축산업도 세계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한국축산은 국내소비의 주원천이 국내생산이고 또한 축산물의 공급량 조절이 비탄력적임에 따라 가격의 등락과 경기변동이 심하여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경기사이클에 더 많

은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축산물의 가격 상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공급이 가능함으로 과거와 같은 호경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국내까지의 운반비와 관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 국내가격 수준보다 낮은 외국의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가격 경쟁력을 가져야하며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기술집약적 축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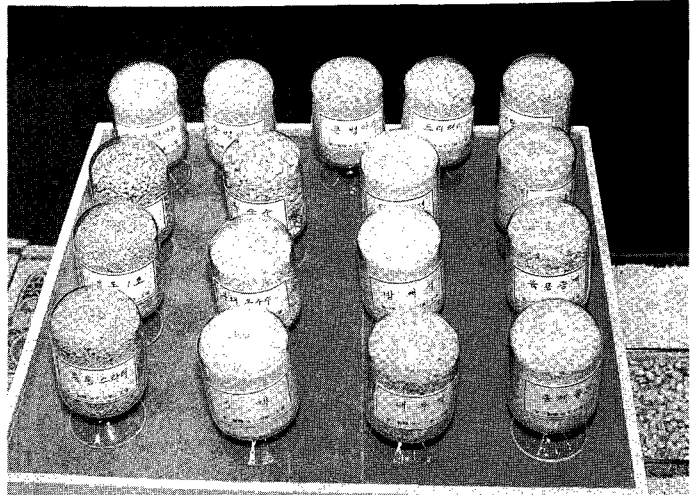
사료업은 축산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바, 축산물의 어려운 상황이 곧 사료업계의 상황이며 또한 사료업계도 축산물의 발전방향에 발맞추어 바뀌어져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료업계에서는,

첫째: 사용원료의 90%가 수입원료로서 사용원료를 다양화하고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구매능력 제고를 통한 사용원료비를 절감하려는 노력,

둘째: 농장에서 지출하는 사료비의 8~10%가 물류비용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셋째: 제조 공정상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비용 절감노력과 신속 정확한 원료의 사료가치 평가제도 확립 및 신제품, 신기술에 근거한 고효율의 사료개발.



넷째: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인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폐지 및 항만, 하역, 통관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력등 사료업계의 내부적 노력을 통해 양축농가에 효율높고 값싼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기본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 축산업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규모확대, 질병의 예방과 통제, 종축의 개량 등 개선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은 농장에서 닭고기 1kg 또는 계란 1개 생산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와 이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의 실천과정을 담은 사육성적의 기록은 농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사료회사에서 사료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의 농장에서 사육성적의 기록이 불완전하고 또 작성된 기록 내용을 공개하길 꺼려하는 것 같다. 이에는 공급된 사료의 효율성을 자료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지속 추적하지 못하고, 또 기록내용이 제공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사료회사들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본인이 업계에 종사하며 외국의 기술자들과 한국 축산농가들의 생산성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축산농가들의 사육성적 “기록부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사육기록이 없으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대책을 세우기 곤란한 점이 한국 축산의 약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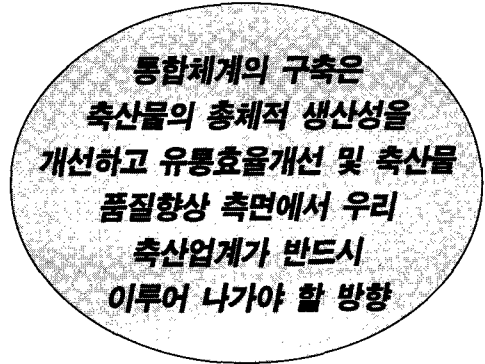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하는 대상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농장, 외국의 사료회사들이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사육성적 기록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축산농가와 사료회사 간의 굳은 신뢰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사료회사는,

첫째 : 농장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작성, 제공해야 하며,

둘째 : 작성된 기록은 품종에 따른 사양표준, 경쟁상대국 농장들의 성적, 국내 농장들의 성적과 대비하고 해당 농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단시일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최신정보와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수집된 다수의 기록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 높은 사료를 추가적 비용없이 제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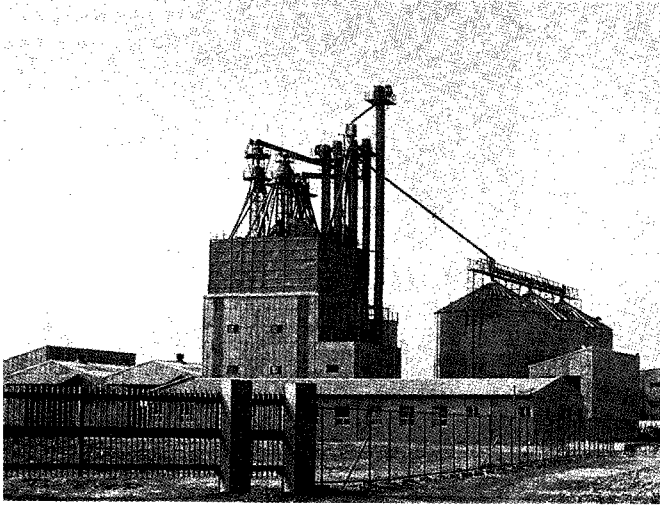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식품 소비형태가 단순한 영양의 보충차원에서 맛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바, 특화된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의 생산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생산비 절감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이다.

전체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34%에 그치고 경지면적과 사료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네델란드가 '93년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1백60억불이고 세계 제1의 계란 수출국이며 세계 4위의 닭고기 수출국인점. 또한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기술농업국이 저급 농산물을 수입하는 반면 고급농산물을 수출하는 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사료업계에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영양적인 측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통화할 수 있는 특수사료들을 지속 개발 공급하고 각 농장들의 상황에 맞는



사료의 공급을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농장과 공동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판매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4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의 5대 기본방향중 '생산, 도축, 가공을 포함한 전단계를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통합경영(제열화)하여 유통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있으며, 통합체계의 구축은 축산물의 총체적 생산성을 개선하고 유통효율개선 및 축산물 품질향상 측면에서 우리 축산업계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 특정 소수에 의해 전 과정이 수행되는 수직통합이 될시에는 생산농가를 포함한 축산물 생산 제단계가 통합주체에 예측화되며, 종축농장, 가공공장, 판매회사 등이 동일 계열 기업군에 포함됨에 따라 자유경쟁에 의거한 적자생존의 경쟁원리를 무시함으로써 또 다른 비효율을 가져와 한국 축산물의 총체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련 각

단계의 주체들이 자유경쟁에 의거 각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 경쟁에서 이겨나기려는 노력을 하고 종축농장, 사양가, 사료회사, 가공공장, 판매회사들이 각기 경쟁력 있는 연관주체들과 경제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과 연합에 의거하는 유기적인 수평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유기적 수평통합에 경쟁력과 신뢰있는 사료업계, 사료회사로 동참하는 것이 사료회사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우리 축산업계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대응 및 UR협상결과에 따른 외국의 축산물에 대해 시장개방 대응등 변화를 요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한편, 식량 생산능력이 막대한 구소련과 중국이 산업화와 농업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여 곡물 수출 가능국이 미국, 캐나다 등 북미대륙과 호주에 불과하여 년초 130\$ 수준의 옥수수 가격이 7월현재 160\$에 달하는 등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앙등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사료업계, 기자재업계, 약품업계를 망라한 범 축산업계의 각자가 기본에 충실하고 내실있는 합리적인 경영으로 축산업 총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때이다.

특히 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업계는 앞서 언급된 구체사안의 역할외에도 국내 축산농가와 공동운명체라는 각오하에 향후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다. **장 11**